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성과 공유

전북도·전북TP·전북대
군산대·전주대 등 참여
전북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공동 워크숍
역량 개발 위한 교육
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



전북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그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워크숍이 지난 1월 30~31일 부안에서 개최됐다.

전북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그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워크숍이 지난 1월 30~31일 부안에서 개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도, 전북TP,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등 90여 명의 관련 직원과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기관과 대학의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해 사업 성공을 위한 목표지향의 팀워크 개발, '심리검사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스킬개발', '퍼스널 컬러진단과 강점을 통한 통합 업무역량 강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각 대학 대학원생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성과를 공유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각 대학별로

15명의 연구 결과를 발표. 그 결과 전북대에서 2명의 학생이 테크노파크 원장상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특히 전북도 및 전북TP와 전북대의 해상풍력에너지, 군산대의 태양광에너지, 전주대의 전력전자 분야의 교수 및 관련 연구원들이 전북 지역의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류의 장이 돼 의미를 더했다. 전북대 방준호 책임교수는 "워크숍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각 대학에서 연구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향후 에너지 인력 수요기업이 적극 참여해 대학원생들이 전북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군산시와 전북TP와 대학 및 기업들이 참여. 오는 2028년까지 약 80여명이 투입돼 5년 동안 300여명의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이사회 무법성 알릴 것”

채은하 한일장신대 총장, 무기한 금식기도 돌입



채은하 한일장신대 총장은 지난 3월 대학본관 사립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학교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금식기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채 총장은 “그동안 이사회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운동장발재활학과 교수 4명을 한꺼번에 재임용 탈락시켜 200여 명의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사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고, 계약직원의 퇴사를 압박하는 등 지나친 학사개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책임없이 총장의 자진 사

퇴를 종용해 오던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급기야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총장의 직위해제 건에 대해 상정했으며, 2월 3일 이사회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라며 “총장의 직위해제가 의결되면 당장 신입생 모집과 학사행정 마비 등 학생과 교직원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총장은 “학교의 모든 문제를 총장 탓으로 돌리고 학교를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몰아가는 이사회의 잔인함과 무법성을 알리고자 무기한 금식기도를 결심했다”며 “주님께서 축으리시면 죽겠다 끝까지 지고 가야할 십자가이고 교년의 길이면 달게 받겠다”고 기도를 당부했다.

/장은성기자

올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 공고

13~17일 도교육청·14개 시군교육지원청서 원서 교부
3월 24일 장소 공고·4월 8일 시험... 5월 9일 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3월 2023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응시원서는 13~17일 도교육청 및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한다. 이에 따르면 초졸 응시자는 전주,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별관 2층 접수처에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중졸·고졸 응시자는 도교육청 별관 2층 접수처에서 하면 된다.

방문접수가 어려운 응시자와 발별·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 스 검정 고시서비스 누리집 (<https://k.ged.jte.gov.kr>)에서 공동인증서

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수의 경우 1일 단축된 10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응시자들은 최종학력증명서 증명사진 2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험장소는 3월 24일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은 4월 8일 시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5월 9일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합격증서 교부는 전라북도교육청 고객지원실을 통해 방문 수령하거나, 원서접수시 기재한 주소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인문학 소재 콘텐츠화 재능 뛰어나네’

전주대, 'JJ웹 콘텐츠 공모전' 성료... 최우수 1팀 등 선정

전주대학교 JJ 웹 콘텐츠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쳤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전국의 고등학생 및 해당 나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5팀, 입선 5팀을 선정했다.

김문택 인문대학장은 축하를 통해 “청소년들이 인문학 소재들을 다듬어 콘텐츠화하는 재능이 뛰어나다”며 “자신들의 발견을 절대 작지 않고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50만원)·우수상(각 20만원)·장려상(각 10만원) 등 상장과 부상이 주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주대학교 JJ 웹 콘텐츠 공모전 이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수상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며, 수상 작품들은 추후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윤형완 교수

행안부장관상 수상받아

전주비전대학교 윤형완 교수(응급구조학과)는 최근 생명보호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윤 교수는 대한응급구조학회 이사직으로 활동하며 그간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및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에 열정을 쏟아왔다.

이번 수상은 국민의 생명보호 및 응급의료 발전 유공자를 심사기준에 따라 민간인 8명에게 수여됐다. 윤형완 교수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은 개인 각자 이외에 병원 및 병원 전 단계의 모든 보건의료진과 구성원들의 협력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협업체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군산JC

지역발전 방안 논의

군산청년회의소(군산JC) 지역 회장 등 회장단 일행이 지난 2일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을 예방하고, 군산청년회의소와 군산대학교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회장 등 회장단 일행은 2023 청년의 도전, 군산의 미래를 테마로 한 청년회의소 운영계획을 설명하며, 지역의 핵심동력인 군산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군산청년회의소가 진행 중인 제1회 새만금 친환경 모터쇼와 저출산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활동은 공동 관심사로, 군산대학교와 군산청년회의소가 협력한다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산청년회의소가 1,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저출산에 대한 설문조사 빅데이터는 최근 인구소멸위기로 지정된 군산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좋은 자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이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산학협력 교류 활동·네트워크 기반 구축

전주기전대-백석문화대 협약

산학협력 공유플랫폼 활용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등



전주기전대학 LINC3.0 사업단은 지난 3일 본교 첨단회의실에서 백석문화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기전대학 LINC3.0 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3일 본교 첨단회의실에서 백석문화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대학 간 산학협력 교류 활동 및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주기전대학 조덕현 LINC3.0 사업단장과 백석문화대학교 장명균 미래혁신교육원장을 비롯한 연구위원 및 사업 담당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링크 비참여대학인 백석문화대학교에 전주기전대학 LINC 3.0 사업의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업체 연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확대 및 주문식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 향후 산학협력의 핵심 추진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기전대학 LINC 3.0 사업단은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백석문화대학교의 산학협력 공유플랫폼을 활용한 △

전문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교육 △ 관련 분야의 협력 연구 및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진문 지식 기술 정보 교류 △신사업체 제작자 직무교육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류 활동을 약속했다.

조덕현 단장은 “LINC3.0 사업 참여대

학뿐만 아니라 링크 비참여 대학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하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LINC3.0 사업 참여대학 뿐만 아니라 비참여 대학 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퇴직예정 교육공무원 채용지원서비스 시행

도교육청, 대상자 기준 1년 이내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공무원들의 퇴직 이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들의 퇴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퇴직 이후 인생 설계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이수한 4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가 생애진로설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퇴직예정 대상을 기존 1년 이

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의 희망을 받아 2~11월까지 진로설계과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원들과 함께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퇴직예정 교육공무원들의 제2의 인생 설계에 밑거름이 되고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